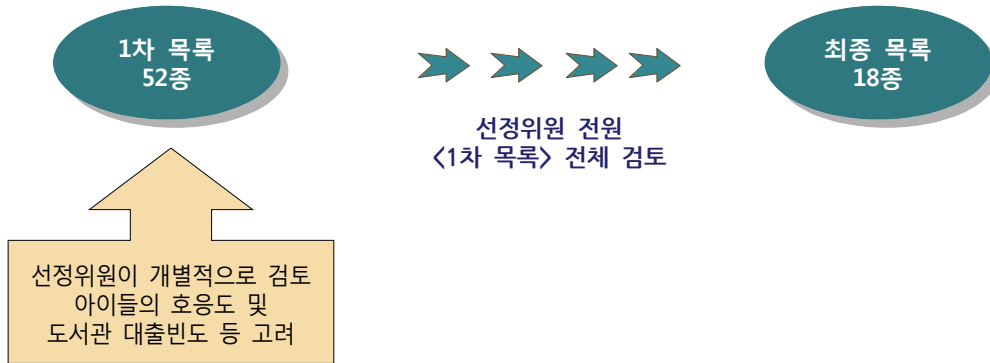


2016년 씨앗 주제도서 선정

▶ 도서선정 : 18종 19권

- 대상주제 : 바람직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꿈은 무엇인지’, ‘건강한 삶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등을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는 책 (키워드 : 꿈, 진로, 직업, 삶 등)
- 대상독자 : 11~16세 청소년 (초등고학년 ~ 중학생)



▶ 도서선정위원

- 북큐레이터 안정희, 독서치료사 김용인, 일산호수초등학교 사서 범경화,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담작은도서관 사서 허성옥
- 아이들의 시각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해당 주제분야의 책을 직접 찾아 읽을 수 있고, 내용의 적절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

▶ 선정기준

- 내용적 측면 : 돈 잘 벌고 화려하여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직업과 일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조명하거나, 그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관련 평전 포함) 또는 이런 스토리를 갖는 성장 소설이나 동화
- 형태적 측면 : 단행본을 기준으로 하되 텍스트 위주의 책, 그림책, 만화책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

< 2016년 씨앗 주제도서 목록 : 18종 19권 >

NO	구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1	문학	열혈 수탉 분투기	창신강	푸른숲주니어	2015
2	문학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천효정	문학동네	2015
3	문학	하필이면 꿈이 만화가라서	올리버 폼마반	뜨인돌	2016
4	문학	도무라 반점의 형제들	세오 마이코	양철북	2011
5	문학	뽀이들이 온다	윤혜숙	사계절	2013
6	문학	원예반 소년들	우오즈미 나오코	양철북	2012
7	문학	기억전달자	로이스 로우리	비룡소	2007
8	문학	그래도 내일은 희망	조앤 바우어	주니어김영사	2008
9	문학	우리들의 에그타르트	김혜정	웅진주니어	2013
10	문학	뽕치GO 박차GO	장정희	우리학교	2015
11	문학	죽은 시인의 사회	N.H.클라인바움	서교출판사	2004
12	문학	내 청춘, 시속 370km	이송현	사계절	2011
13	문학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두레	2005
14	문학	풀빵이 어디서	김학찬	창비	2013
15	인물	광고천재 이제석	이제석	학교재	2010
16	정보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	탁선산	창비	2009
17	정보	꿈, 지금 꼭 정해야 하나요?	김국태	팜파스	2014
18	만화	무한동력 (1~2권)	주호민	동양북스	2009

책을 고르며 ...

구체적인 직업을 소개하거나 자기계발서 형태로 된 정보 위주의 책들보다 십대들의 고민과 부딪침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책들을 선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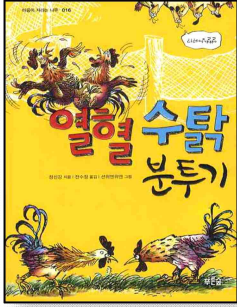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그린 '이야기' 중심의 책이 꿈을 찾지 못해 답답하고, 꿈을 이루지 못해 아프고, 꿈에 짓눌려 힘겨워 하는 십대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십대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꿈과 진로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청소년기는 이제 막 '내가 누구인지', '난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내가 알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이 다르다는 것,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는 첫 출발선에 서있는 시기입니다.

진로와 꿈을 정해 달려가야 한다며 십대들을 억압하는 대신, 고민하고 부딪혀보는 것 자체가 의미있고 소중한 경험임을 말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들을 선정하고자 한 까닭입니다.

진로를 정하지 말거나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 경쟁에 지친 아이들, 다 가니깐 나도 간다고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현실적인 실리를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불확실하고 막연한 꿈을 꾸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하루하루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가는 중' 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른 이 책들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이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일상이 진로와 꿈을 찾아가는 현장'이라고 격려하며, '천천히 조금씩 단단한 내면을 갖도록 돕는' 그런 친구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혈 수탉 분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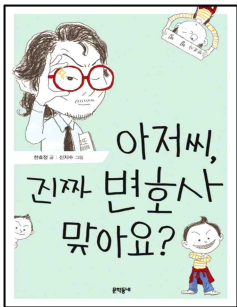
- . 창신강 지음
- . 전수정 옮김
- . 선위엔위엔 그림
- . 2015년 | 푸른숲주니어

책 소개

주인공은 수평아리로 태어났으나 병아리감별사 아주머니의 실수로 암탉으로 알려져 용케 살아남습니다. 성장하면서 자신이 수탉인 줄 알게 되지만 양계장에 수탉은 한 마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먹기 좋게 길러지는 닭이 아닌 토종수탉으로 멋있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지만 영웅처럼 보였던 아빠 닭이 죽고 친구들은 주인공 병아리가 우두머리 수탉이 될까 견제합니다. 가슴 시리던 첫사랑 룡룡은 닭 도매업자 트럭에 실려 도시로 팔려나가고.. 닭장에 갇혀 살다 조류독감에 걸려 집단 폐사한 양계장의 닭들을 보고 주인공 수평아리는 가족 이끌고 탈출합니다.

선정이유

맹랑하고 어설픈 수평아리, 처음에는 아빠를 닭고 싶어 걸모습을 흉내 내기도 하지만 위풍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상실과 상처, 친구들과의 싸움, 갈등하는 과정에서 성장해가는 수평아리의 일상이 유쾌하고 발랄하게 그려져 읽기 시작하면 멈춤 없이 계속 읽게 됩니다. 인간의 삶과 많이 닮은 양계장 닭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면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활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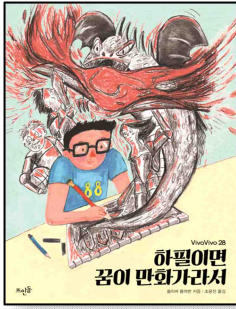
- . 천효정 지음
- . 신지수 그림
- . 2015년 | 문학동네

책 소개

변호사 빙빙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때까지 학교를 다니는 내내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 없고, 법대를 졸업하기도 전에 사법시험에 단번에 합격한 수재입니다. 반면 동네꼬마 하록은 전교 꼴찌를 도맡아하는 조손 가정의 초등학생이지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이 만나 사건에 휘말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쌓습니다.

선정이유

변호사 빙빙씨는 학창시절 늘 남들보다 앞서 있다가 변호사 개업 이후 패소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만 잘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친구도 많아지고, 신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게 될 거다'고 했던 어른들의 말만 믿었다가 이제야 '속았어!'라고 나지막하게 내뱉지요. 공부는 못하지만 친구도 많고, 인생을 신나게 즐기면서 사는 것 같은 하록은 빙빙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폭 빠져들면서도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진짜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필이면
꿈이 만화가라서**

- . 올리버 폼마반 글
- . 조윤진 옮김
- . 2016년 | 뜨인돌

책 소개

코너라는 멀쩡한 이름을 두고 이름에 너드(공부만 잘 하는 열간이)를 붙여 코너드라고 불리는 주인공은 공부로는 학교에서 제일 뛰어나지만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그저그런 찌질이일 뿐입니다. 특목고 입시를 위해 하루종일 공부를 해야 하고, 쉬는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기 때문이죠. 아버지 없이 홀로 힘들게 코너를 키우는 어머니의 꿈은 코너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농구도 하고 연애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만화가가 되고 싶은 코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정 이유

이 책의 주인공 코너는 만화를 그릴 때면 마냥 신이 나지만 '아들이 의사가 되어 가문을 빛내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꿈을 저버릴 자신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의사가 될 만큼 공부도 잘 하거든요. 그러나 엄마 앞에서 결국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드러내는데.. 어른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바라는 꿈'이 없다는 말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꾸는 꿈은 여러분의 꿈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꿈은 아닌가요?



도무라반점의 형제들

- . 세오 마이코 지음
- . 고향옥 옮김
- . 2011년 | 양철북

책 소개

헤이스케와 고스케는 오사카에 있는 중국요리식당 도무라반점의 아들들입니다. 형 헤이스케는 주방일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집을 나오려는 이유로 소설가를 꿈꾸고, 동생인 고스케는 일찍부터 하고 싶은 것을 정한 형 대신에 아버지의 반점 일을 이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처음 해 본 칼질에서 실수를 한 후 주방일에는 관심 없는 척, 대도시 전문학교에 다니며 소설 공부를 하던 헤이스케는 점점 마음이 허함을 느낍니다. 반면 아버지 일을 이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고스케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당황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좋은지, 어떤 일이 행복한지를 고민하는 두 형제의 좌충우돌 이야기입니다.

선정 이유

'꿈이 없는 게 진짜 없다는 게 아닌데...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그 길을 못 찾았을 뿐'이라는 고스케는 많은 청소년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방향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크게 잘나지도 않고 크게 못나지도 않는 평범한 두 형제가 서로의 삶에 끼어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겪고 부딪치며 배워가는 과정이 설득력이 전개되고.. 방향과 고민의 순간들이 실은 소중한 꼭 필요한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변이들이 온다

- . 윤혜숙 지음
- . 2013년 | 사계절

책 소개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던 일제 강점기. 경성에 살던 십대 소년 수한, 동진, 장생은 거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전기수)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영화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변사에게 몰려갑니다. 한 스승 밑에서 전기수 일을 배웠지만 동진은 돈을 쫓아 변사가 되기로 하고, 수한과 장생은 서두르지 않고 우선은 전기수 일을 계속하기로 하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십대 소년 세 명이 꿈과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선정이유

주인공 소년 세 명은 모두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일을 할 것인가? 자신이 좋아하는 꿈을 쫓을 것인가? 시대는 다르지만 소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의식은 지금과 매한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는 끊임없이 변해가지만 인류의 삶이 지속되는 한 이야기는 계속 생산되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수한, 장생, 동진의 삶은 십대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나와 친구들의 이야기'로 가깝게 들릴 것입니다.



원예반 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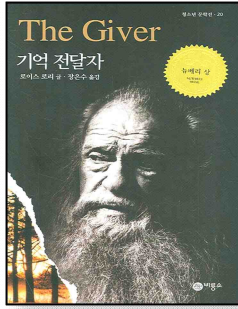
- . 우오즈미 나오코 지음
- . 오근영 옮김
- . 2012년 | 양철북

책 소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세 명이 우연히 학교 뒤뜰에서 작은 화분을 발견하고 원예반을 만들어 꽃을 가꾸며 겪는 봄, 여름, 가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주먹질 좀 했던 오와다, 집단 괴롭힘의 상처로 머리에 종이 상자를 쓰고 등교하는 쇼지, 매사에 시니컬한 평범남 다쓰야. 전혀 다른 성향의 세 소년은 학교 뒤뜰에 버려진 화원을 가꾸면서 각자가 품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믿는 우정을 쌓아갑니다. 씨앗을 구해서 싹을 틔우고 정성스럽게 꽃을 피우기까지 식물과 함께 세 소년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청소년과 꽃이 공통적으로 지닌 생명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선정이유

식물과 꽃들은 씨앗으로부터 작은 싹을 틔우고 원색과 초록이라는 색을 지니고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중에서 꽃이나 식물에 우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 아이들은 많지 않겠지만, 일단 생명의 힘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놀라운 능력에 매료당하게 됩니다. 10대의 청소년들은 무엇으로 자랄지 모르는 씨앗과 같은 무한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성을 쏟으며 가만히 지켜보아야 겨우 작은 싹이 나오지만 얼마만큼 클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들의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기억전달자

- . 로이스 로우리 지음
- . 장은수 옮김
- . 2007년 | 비룡소

책 소개

이 책의 무대는 미래사회의 어느 마을입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지요. 조너스는 열두 살이 되는 생일날, '기억보유자'라는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이제 '기억 전달자'가 된 선임 기억보유자에게 과거의 기억들을 전달받으면서 조너스는 완벽한 사회를 위해 희생된 진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통제와 질서 추구는 결국 비인간성을 낳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정이유

어떠한 모험도 위험도 없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완벽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직업을 갖고 살지, 어떤 꿈을 꿀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으며 열두 살이 되면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임무를 부여해 줍니다. 그 사회에서 사는 대가는 극단적인 통제입니다. 자의식이나 감정을 느끼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책을 읽을수록 스스로 꾸는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잘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내일은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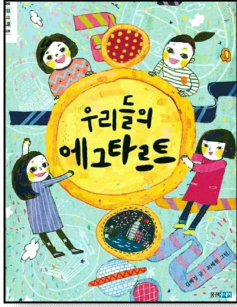
- . 조앤 바우어 지음
- . 고은광순 역음
- . 2008년 | 주니어김영사

책 소개

호프는 어릴 적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닌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이모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요리사인 이모를 따라 식당을 옮겨 다녀야만 했던 호프는 위스콘신의 작은 마을 멀허니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식당 주인인 스톱을 만납니다. 불치병과 싸우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장 선거에 출마한 스톱. 호프는 그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새 친구도 사귀고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으며 어려운 삶 속에서 희망을 지켜내는 용기를 배워갑니다.

선정이유

정치를 소재로 한 내용이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는 소녀를 통해 '희망'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순탄치 않은 삶을 사는 한 소녀의 성장을 지켜보면 희망을 잃지 않는 삶과 진정한 용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개인의 역할과 희망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끔 합니다.



우리들의 에그타르트

- . 김혜정 지음
- . 최혜원 그림
- . 2013년 | 웅진주니어

책 소개

5학년이 된 박영은, 안효진, 연주라, 주수정은 새로 생긴 카페에서 난생 처음 에그타르트를 맛보고 그 맛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입 안에서 맴도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더 많은 에그타르트를 먹기 위해 직접 만들어도 보지만 생각처럼 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에그타르트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을 본 카페 언니는 에그타르트의 원조는 마카오이며 마카오에 가면 더 맛있는 에그타르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에그타르트를 맛보기 위해 '마가대'를 결성! 마카오 가기大作战을 위해 경비마련에 힘쓰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되고.. 과연 4명의 소녀들은 마카오 에그타르트를 맛볼 수 있을까요?

선정이유

대부분 "너는 꿈이 뭐니?"라는 질문에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꿈은 꼭 직업이어야 할까요?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루고 싶은 다른 일이 꿈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마카오에 가서 맛있는 에그타르트를 맛보겠다'는 12살 소녀들의 꿈을 통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의 귀엽고 당찬 도전이 재미를 주고 있으며, 꿈은 거창하고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박치Go 박차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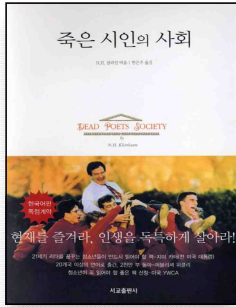
- . 장정희 지음
- . 2015년 | 우리학교

책 소개

이 소설은 국악을 전공하는 예술고 대금소년 김준우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준우는 말 그대로 대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아버지의 사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기도 하고, 자신의 재능에 대한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 준우의 꿈은 점점 멀어져가는 듯 보입니다. 자신의 재능은 점점 작아 보이고, 자신보다 못한 것 같던 친구들은 점점 성장해 가는 거 같고, 끊임없이 '빡칠 일' 투성이지요. 준우와 예술고 아이들이 수많은 악전고투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꿈을 지켜내는지, 무엇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흥미진진하게 보여줍니다.

선정이유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선택한 아이들이 모인 국악고는 자신의 특기에 따라 이미 갈 길을 정한 조금은 쉬운 길을 선택한 아이들이 모인 곳처럼 보이지만, 아직 10대에 불과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끝없이 자신과의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더 쉽게 자신의 꿈에 한발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아직도 나의 '꿈'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 나의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죽은 시인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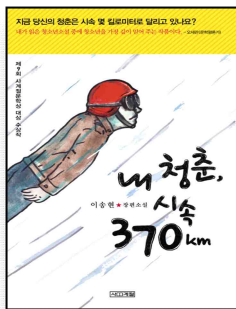
- . N.H.클라임baum 글
- . 한은주 옮김
- . 2004년 | 서교출판사

책 소개

졸업생의 70% 이상이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웰튼 아카데미,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고 엄격한 통제를 받는 기숙 고등학교입니다. 목표는 오직 명문대 진학.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웰튼 아카데미에 국어선생님 존 키팅이 부임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키팅 역시 웰튼 아카데미 출신이지만 색다른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문합니다. 앞날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 참 교육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빛내내는 이야기가 간박하게 전개됩니다.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로 더욱 유명하며,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선정이유

막연히 부모가 정해주는 길을 가고 정해주는 일을 하면서 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일이 아니어서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래전, 영화가 전해주었던 청소년기의 소중한 꿈의 열망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청춘, 시속 37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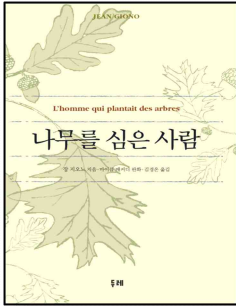
- . 이승현 지음
- . 2011년 | 사계절

책 소개

자신만의 멋진 바이크를 갖는 것이 꿈인 열일곱 살 동준이는 매사냥에 빠져 가족은 뒷전인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참지 못해 집을 나간 엄마 덕분에 인생이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준이는 가끔 동네 중국집의 고물 바이크를 빌려 신나게 달리며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유일한 수제자가 군대로 도망가는 사태가 일어나고, 동준은 중고 바이크를 사기 위해 아버지를 돕게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사냥을 해보지 않은 어린 보라매 '보로'를 맡게 된 동준이는 좌충우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보로'에게 애정을 갖게 되고, 자신보다 매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인 매사냥을 소재로 주인공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보듬어 안기까지의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선정이유

응방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와 소재로 현실을 살고 있는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동준의 현실은 기대할 것도 없고, 꿈을 꿀 여유조차 없어 보이지만, 동준은 작은 매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점차 이해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는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만나게 해 주고,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직업이 자기가 꿈꾸는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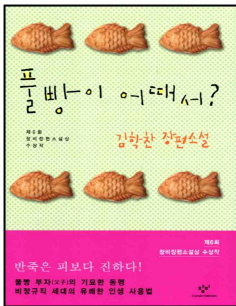
- . 장 지오노 지음
- . 김경은 옮김
- . 2005년 | 두레

책 소개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산지대.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고장이었으나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폐허의 땅으로 변해버린 이곳에 한 늙은 양치기가 나무 심는 일을 시작합니다. 홀로 산 속에 살면서 매일 도토리나 자작나무 심는 일을 계속한 지 40여 년,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담담하게 펼쳐집니다.

선정이유

오직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책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는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나무를 심습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과 실천은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한낱 늙은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고결하고 거룩한 성자처럼 보입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처럼 마음먹고 꾸준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희망을 심을 수도, 죽어가는 지구를 살려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책이 전 세계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풀빵이 어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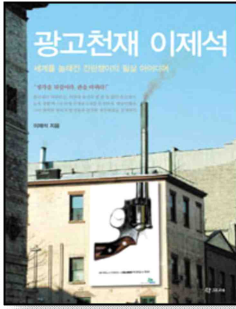
- . 김학찬 지음
- . 2013년 | 창비

책 소개

29살 청년의 어릴적 꿈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맛있는 붕어빵을 굽는 일입니다. 그 일이 곧 천직이라 여겼던 청년이 군에 입대하여 전역할때까지 지겹도록 붕어빵을 굽게 되면서 결국 붕어빵과 이별을 고하게 되고.. 청년은 타코야끼의 명인이 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도 떠나지만 붕어빵을 굽는 아버지는 타코야끼를 굽는 아들이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절대 타코야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붕어빵 굽기를 권하는 아버지. 과연 청년은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코야끼를 구울 수 있을까요?

선정이유

친숙한 길거리음식 중 하나인 '붕어빵'과 '타코야끼'를 소재로 한 <풀빵이 어때서?>는 '붕어빵'의 명인인 아버지와 '타코야끼'의 명인이 되고 싶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화통화 속 대화를 통해 부자간의 대립을 이야기하는 구조가 독특하며, 그들의 거침없는 대화 속에서 붕어빵과 타코야끼에 대한 철학과 자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싫든 무조건 가업을 잇겠다는 생각 보다는 어떠한 계기가 되었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아들의 강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붕어빵'과 '타코야끼'로 대변되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생각의 차이와 갈등은 물론, 이제 곧 서른이 되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을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과 삶에 대한 열정과 갈망, 의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광고천재 이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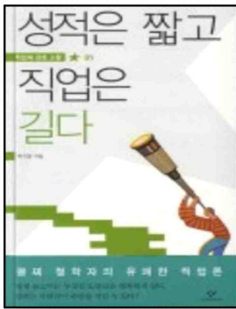
- . 이제석 지음
- . 2010년 | 학교재

책 소개

광고천재라 불리는 이제석을 아시나요? 아마 한 광고를 이야기하면 모두가 '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 공부보다 만화 그리기를 더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으로도 대학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더 열심히 그리며 마침내 디자인학과에 입학합니다. 입학 후 대학생 광고 공모에 꾸준히 응모하지만 떨어지기 일쑤. 졸업해서 맞닥뜨린 현실은 오라는 회사 하나 없다는 것. 결국 이제석이 선택한 것은 동네 간판장이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국제광고제에서 상을 휩쓸고, 공모전 신화를 기록하며 광고천재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선정이유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볼 뿐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대 출신의 별 볼일 없는 간판쟁이가 뛰어난 광고쟁이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이 책을 보다보면 하나의 직업세계가 보이고, 한 사람의 가치관이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광고 철학 속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휴머니즘이 보이고, 창의력에서든 삶의 방식에서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유명 광고들을 예시로 들고 있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며, 광고인으로서의 직업정신은 물론 세상을 보는 다른 시선까지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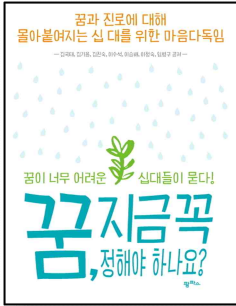
- . 탁석산 지음
- . 2009년 | 창비

책 소개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직업을 찾은 철학자 탁석산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과 직업,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직업 선택의 어려움, 일의 의미,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예시들을 곁들여 쉽게 풀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직설적이지만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며, 읽고 싶은 대목을 찾아 먼저 읽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선정이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왜 일을 해야 할까?'란 고민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일로서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갖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자는 본인의 능력을 파악하여 잘하는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일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이해를 도우며, 일과 인생의 진짜 의미까지 찾을 수 있도록 위로와 조언을 건네는 책입니다.



꿈, 지금 꼭 정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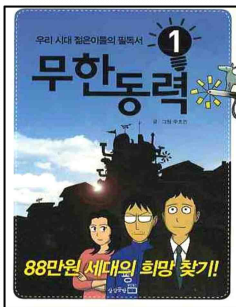
. 김국태, 김기용 외 지음
. 2014년 | 팜파스

책 소개

7명의 중고교 교사가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책입니다. '꿈과 진로는 꼭 같아야 할까요?', '갈팡질팡, 내 마음이 자꾸 변해요. 그냥 골치 아픈 꿈 생각 안하고 즐기면서 살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친구 따라 꿈을 함께 꾸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죠?' 라는 물음에 경험적 실천적 조언을 딱딱하지 않게, 이해하기 쉽게 기술한 책입니다.

선정이유

진로와 꿈에 대해 당장이라도 답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상황에 몰린 청소년들에게 공부처럼 여겨 지금 당장 정답을 찾으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조바심에 빠져 자신감 마저 잃지 말라고 다독여주는 책이 필요합니다. 실제 교실에서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나를 더 믿고, 자신의 선택을 더 존중하고, 흔들려가며 충분히 고민하고, 실패 앞에서 보완점을 배우고,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해주는 책입니다.



무한동력 1-2

. 주호민 지음
. 2009년 | 동양북스

책 소개

달동네 수자네집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경영학과 4학년 선재,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 중인 기한, 아버지 사업이 망해 네일숍에서 일하는 김솔이 하숙을 합니다. 마당 한 가운데에는 수자아빠가 평생동안 연구 중인 무한동력 연구기관이 있는데, 어떤 에너지원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기계를 개발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수자는 돈을 벌지 못하는 아빠와 일찍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하여 하숙집을 운영하며 대학을 준비하느라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수자를 비롯하여 저마다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하숙생들은 고단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무력감에 짓눌리기도 하지만, 점점 주인집 아저씨의 '꿈을 꾸는 마음'에 전염됩니다.

선정이유

취업을 준비 중이나 잘 되지 않는 주인공과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들이 등장합니다. 현실 속에는 저마다의 장벽이 있지만 성장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과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 나라의 이색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책을 읽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모두가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